■ 민족문화연구 제83호(2019.05.3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251-286.
http://doi.org/10.17948/kcs.2019..83.251

고대국어 한자음의 기층에 대하여*

김무림(金武林)**

목 차

1. 고대국어 한자음과 중세국어 전승 한자음의 경계
2. 고대국어 한자음이 중세국어 한자음과 다른 것
3. 고대국어 한자음의 기층
4. 남은 문제: 음성운(陰聲韻)의 자음 운미(子音韻尾)
5.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고대국어 한자음의 기층을 알아보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국어 한자음은 국어의 역사에 비추어 고대국어 한자음, 중세국어 한자음, 근대국어 한자음, 현대국어 한자음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중에서 중세국어 한자음은 훈민정음이라는 표음문자로 표기됨에 따라 국어 한자음의 역사에서 특별한 지위를 지니고 있다. 중세국어 한자음은 이에 대한 모태론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대체적으로 후기 중고음인 당대(唐代) 장안음을 기층으로 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고대국어 한자음은 우선 재구(再構)의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고대국어 한자음의 기층에 대한 논의는 자못 소략할 수밖에 없었다. 본고에서는 한자를 이용한 고대국어의 다양 표기를 검토하여 고대국어 한자음을 재구하고, 이에 대한 기층이 한어

* 이 논문은 2018년도 강릉원주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강릉원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사(漢語史)의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논의하였다. 고대국어 한자음은 체계적인 측면에서 중세국어 한자음과 차이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기층을 논의한 결과 전기 중고음이 고대국어 한자음의 주요한 기층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여기에 개별적인 상고음 기층이 있다는 것도 첨언하였다. 아울러 삼국시대의 한자음과 통일신라의 한자음이 어느 정도 신구(新舊)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논의하면서, 중세국어 한자음은 고려시대에 들어서 새롭게 정립된 것이라는 것도 언급하였다.

주제어: 고대국어 한자음, 중세국어 한자음, 기층, 성모(聲母), 운모(韻母).

1. 고대국어 한자음과 중세국어 전승 한자음의 경계

중세국어 한자음의 주요 모태층이 당말(唐末, 9세기 전후)의 후기 장안음(長安音)이라고 하면, 고려(918-1392)의 건국 이전이다.[1] 9세기를 전후한 통일신라(676-935) 시대에 전승 한자음의 주요 기반이 확립되어 국어의 현실 한자음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면, 전승 한자음은 중세국어 한자음일 뿐만 아니라, 고대국어 한자음이라고 불러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전이 과정이나 전승 한자음의 특성에 비추어 이러한 논의는 비판적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통일신라 시대의 한자음과 중세국어의 전승 한자음을 역사적 의미에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데에는 두 가지 측면의 근거가 있다. 첫째는 통일신라의 차자표기에 나타나는 한자음이 전승 한자음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전승 한자음의 모태론에서 드러나는 근대적 특징이 통일신라 시대까지 소급시키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향가(鄕歌)는 삼국시대의 말엽에 발생하여 통일신라 시대에 성행하였다. 여기에 쓰인 주요한 차음자(借音字) 중에서 전승 한자음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몇 개만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 전승 한자음의 모태론에 대한 여러 논의는 중세국어 한자음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참조. 有坂秀世, 「漢字の朝鮮音について」(1936), 『國語音韻史の研究』, 三省堂, 1957; 河野六郎, 『朝鮮漢字音の研究』, 天理時報社, 1968; 『河野六郎著作集 2』, 平凡社, 1979; 박병채, 『古代國語의 연구』, 고려대 출판부, 1971; 伊藤智ゆき, 「朝鮮漢字音研究」, 東京大學 博士學位論文, 2002 등이 이에 대한 주요한 논저이다.

가. 향가의 한자음과 전승 한자음

〈借字〉	〈향가음〉	〈전승음〉
米	ᄆᆡ	미
賜	시	ᄉᆞ
史	ᅀᅵ/시	ᄉᆞ
只	기/ㄱ	지

향가에 쓰인 이러한 차자의 음가는 당시의 한자음을 토대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들 한자음이 국어 음운사적인 내부 변화를 통하여 전승 한자음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이들 향가에 사용된 한자음은 이후의 역사적 과정에서 소멸하였으며, 전승 한자음에서 보여주는 새로운 한자음으로 교체되었기 때문이다. '가'에 보인 용례는 몇 자에 지나지 않지만, 이들 한자음의 차이가 보여주는 대표적 상징성은 국어 한자음의 역사에서 지표(指標)가 되기에 충분하다. 향가는 아니지만 신라의 목간(안압지 출토, 8세기 중후반)에 나오는 '助史'가 중세국어의 '젓'[2]에 해당한다고 하는 견해가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助'의 고대국어 한자음 [저]는 중세국어 한자음 [조]와 구분된다. 국어의 내부에서 [저]가 [조]로 되는 변화는 가능하지 않다.

고대국어 한자음과 전승 한자음의 단절을 보여주는 체계적인 내부적 특징으로서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성격은 10세기 이후의 한어음(漢語音)에 맥락이 닿아 있다고 이해되는 전승 한자음의 근대성이다.

나. 전승 한자음의 근대적 특성으로서 체계적인 것[3]

① 강운(江韻, 開2)의 운모 반영은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앙/-악]이다. 강운(江韻)의 운모에 대한 중고 재구음을 보면 핵모가 원순모음인 [-ɔŋ/-ɔk]으로 재구되는 것이 음운사적으로 가장 무난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후

2) 『훈몽자회』 중, 21장.

3) 김무림, 「한국 한자음의 근대성(1)—반영 양상의 종합—」, 『한국어학』 제30호, 한국어학회, 2006; 「국어 한자음의 체계적 근대성」, 『한국어학』 제34호, 한국어학회, 2007b에서 전승 한자음의 근대적 특징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기중고음, 또는 근대음 이후에 강섭(江攝)이 탕섭(宕攝)에 합류된 것은 원순성 핵모 [ɔ]가 평순모음 [a]로 변화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② 지섭(止攝)의 치두음과 정치음(照2계)에 나타나는 [-ʏ]의 반영은 체계적인 근대적 특징이다.

③ 어운(魚韻, 開3을)의 아음과 후음은 운모가 [-어]로 반영되는 것이 정칙이나, 정치음(照2)(청1-菹,詛/져,阻,葅/조, 차-初,礎,楚/초, 청2-所,疏,踈,蔬,梳/소, 탁1-鋤/서,助/조)에서는 예외적인 [-어]를 제외하면, [-오]로 반영되는 것이 정칙이다. 어운(魚韻)의 개구음에서 정치음(照2계)이 [-오]로 반영된 것은 중고음 이후 권설화와 핵모의 원순 모음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밖에도 전승 한자음의 근대적 특징은 더 열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체계적 특성을 고대국어 한자음에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세국어의 전승 한자음을 고대국어 한자음의 범주에 넣어 처리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고대국어 한자음이나 중세국어 한자음이 역사적 동일체인 한어(漢語)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동소이(大同小異)의 양상을 보인다는 것은 필연이다. 그러므로 고대국어 한자음과 중세국어 한자음의 시대 구분에 대한 감각은 대동(大同)을 염두에 두면서도 소이(小異)의 실현에 민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4]

고대국어 한자음과 대비되는 전승 한자음의 근대적 특징이 고려 시대에 들어 일거에 개신(改新)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당말(唐末)의 언어적 개신(改新) 상황이 통일신라에 전이되어 국어 한자음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가'나 '나'에 보인 논거들을 토대로 하면, 전승 한자음에 나타나는 새로운 특징들이 주류 한자음으로 기능을 하게 된 것은 고려에 들어서 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하여 고대국어 한자음과 구분되는 중세국어 전승 한자음의 시대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4) 근래 魏國峰, 『고대 한국어 음운 체계 연구』, 태학사, 2017의 견해는 중세국어의 전승 한자음에 나타나는 체계적인 근대적 특징을 모두 통일신라 시대에 실현된 후기 중고음의 반영으로 처리하면서, '고대국어 한자음'이라는 범주에 넣었으므로, 본고의 입장과는 견해가 다르다.

2. 고대국어 한자음이 중세국어 한자음과 다른 것

한자의 음과 훈을 이용하여 표기한 고대의 고유명사(지명, 인명, 관명)는 문헌에 따라 다양한 이표기(異表記)가 있으며, 이로부터 당시의 한자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몇몇 어휘 표기는 중세국어의 형태에 이어지는 것도 있어서 역시 당시 한자음의 일면을 보여준다. 향가를 기록한 향찰 표기의 한자음이나, 구결 및 이두의 한자음도 고대국어 한자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두 및 구결은 주로 고려 및 조선의 문헌에 나타나므로 선별하여 고대국어 한자음에 편입시킬 수 있다.

고대국어의 음차 표기 한자음을 검토하여 중세국어 한자음과 비교하면 상당한 일치와 함께 주목할 만한 불일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대국어 한자음에 대한 논점은 중세국어 한자음과의 대비에서 다름에 대한 해석에 있다. 차자표기의 음차자(音借字)에서 재구음의 신뢰도가 비교적 높다고 생각되는 한자를 대상으로 하여 중세국어 한자음과 다른 것을 제시하되, 고구려(高), 백제(百), 신라(新), 통일신라(統) 등을 괄호에 보인다.

가. 고유명사 및 어휘 표기에 나타난 한자음이 중세국어 한자음과 다른 것[5]

[*각](高)

各[中/각/去[6], 宕/開1/入/鐸/見/古落/kɑk[7], 鐸/kla:g[8]][9]

客[中/긱/去, 梗/開2/入/陌/溪/苦格/kʰɐk, 鐸/kʰra:g]

[*ᄀᆡ](統)

---

5) 고유명사 및 어휘 표기에서 가능한 고대국어 한자음의 재구는 하나의 음에 대한 이표기(異表記), 그리고 중세국어의 어휘에 연결되는 음차 표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용례는 삼국(高/고구려, 百/백제, 新/신라, 統/통일신라)을 통합하여 제시한다.

6) '中/각/去'는 중세국어의 전승한자음을 보인 것이다. 이하도 같다.

7) 李珍華・周長揖 編, 「攝/等/聲調/韻/聲母/反切/再構音」, 『漢字古今音表』(修訂本), 中華書局, 1999에 의거하였다.

8) 상고음의 韻部/再構音, 재구음은 鄭張尙芳, 『上古音系』, 上海教育出版社, 2003에 의거하였다. 「韻典網」, http://ytenx.org/ 참조.

9) '連城郡, 本高句麗各(一作客)連城郡.', '客連郡(客一作各), 一云加兮牙.' 등에서 '各[中/각]'과 '客[中/긱]'이 동음이거나, 또는 동음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된다. 『삼국사기』 권35, 9장; 권37, 5장.

介[中/개/上, 蟹/開2/去/怪/見/古拜/kɐi, 祭/kreːds][10]

皆[中/ㄱ/平, 蟹/開2/平/皆/見/古諧/kɐi, 脂/kriːl]

[*가](新)

居[中/거/平, 遇/合3/平/魚/見/九魚/kǐo, 魚/kas][11]

[中/?/?, 止/開3/平/之/見/居之/kǐə, 之/kɯ]

矩[中/구/上,去, 流/開1/上/厚/溪/苦后/kʰəu, 魚/kʷaʔ]

[*건](新)

巾[中/건/平, 臻/開3/平/眞/見/居銀/kǐěn, 文/krɯn][12]

近[中/근/上,去, 臻/開3/去/烬/群/巨靳/gǐən, 文/gɯnʔ]

[*걸](新)

乞[中/걸/去, 臻/開3/入/迄/溪/去訖/kʰǐət, 物/kʰɯd][13]

訖[中/흘/去, 臻/開3/入/迄/見/居乞/kǐət, 物/kɯd]

[*계-*기](高, 百, 新)

溪[中/계/平, 蟹/開4/平/齊/溪/苦奚/kʰiei, 支/kʰeː][14]

雞[中/계/平, 蟹/開4/平/齊/溪/苦奚/kʰiei, 支/keː]

支[中/지/平, 止/開3/平/支/章/章移/tɕǐe, 支/kje]

兮[中/혜/平, 蟹/開4/平/齊/匣/胡鷄/ɣiei, 支/ɢeː]

[*검](高)

今[中/금/平, 深/開3/平/侵/見/居吟/kǐěm, 侵/krɯm][15]

---

10) '介山郡, 本高句麗皆次山郡, 景德王改名, 今竹州.'에서 '介[中/개]'와 '皆[中/ㄱ]]'가 동음 관계에 있다. 『삼국사기』 권35, 2장.

11) 신라의 왕인 '赫居世王'의 주석에 '盖鄕言也. 或作弗矩內王, 言光明理世也.'에서 '居'는 '矩'와 동음성 표기로 사용되었다. 『삼국유사』 44장.

12) '嘉酋縣, 本近(一作巾)品縣, 景德王改名, 今山陽縣.'에서 '近[中/근]'과 '巾[中/건]'이 동음 관계에 있다. 『삼국사기』 권34, 3장.

13) '訖解尼師今', '乞解尼叱今' 등에서 '訖[中/흘]'과 '乞[中/걸]'이 동음 관계에 있다. 『삼국사기』, 권2, 14장; 『삼국유사』 10장.

14) '杞溪縣, 本芼兮縣(一云化雞), 景德王改名, 今因之.', '八谿縣, 本草八兮縣, 景德王改名, 今草谿縣.', '日谿縣, 本熱兮縣(或云泥兮).' 등의 신라 지명, '森溪縣, 本百濟所非兮縣, 景德王改名, 今因之.'의 백제 지명, '檀溪縣, 本高句麗水谷城縣, 景德王改名, 今俠溪縣.'의 고구려 지명 등에 의하여 '兮, 溪(谿), 雞'가 동음 관계에 있다는 것, 그리고 '菓支縣, 一云菓兮.'에 의하여 '支'와 '兮'가 동음 관계에 있다는 것 등에 근거한 것이다. 『삼국사기』 권34, 9장; 권34, 11장; 권34, 3장; 권36, 9장; 권35, 6장; 권37, 9장.

[*금](統)

黔[中/검/平, 深/開3/平/侵/群/巨金/gǐem, 侵/gɾɯm][16]

金[中/금/平, 深/開3/平/侵/見/居吟/kǐěm, 侵/kɾɯm]

[*기](百, 新)

岐[中/기/平, 止/開3/平/支/群/巨支/gǐe, 支/ge][17]

鬐[中/기/平, 止/開3/平/脂/群/渠脂/gi, 脂/gri]

只[中/지/上,去, 止/開3/上/紙/章/諸氏/tɕǐe, 支/klje?/klje]

支[中/지/平, 止/開3/平/支/章/章移/tɕǐe, 支/kje][18]

[*기](百)

己[中/긔/上,去, 止/開3/上/止/見/居理/kǐə, 之/kɯ?][19]

其[中/기/平,去, 止/開3/平/之/見/居之/kǐə, 之/kɯ]

只(앞 항목 참조)

[*누](高, 新)

內[中/ㄴᅴ/上,去, 蟹/合1/去/隊/泥/奴對/nuɒi, 內/nuːbs][20]

---

15) 고구려 지명인 '黑壤郡(一云黃壤郡), 本高句麗今勿奴郡, 景德王改名, 今鎭州.'에서 '黑'에 '今勿'이 대응하고, '壤'에 '奴'가 대응된다. 『삼국사기』 권35, 1장. '今勿'은 '거믈 흑(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今'에 대한 [검]의 음을 확인할 수 있다. 『훈몽자회』 중, 29장.

16) '金浦縣, 本高句麗黔浦縣, 景德王改名, 今因之.'에서 '金[中/금]'과 '黔[中/검]'이 동음 관계에 있다. '金'은 [中/김/平]도 있지만, [김]은 후대의 음이다. 『삼국사기』 권35, 3장.

17) 백제의 지명인 '多岐縣, 本百濟多只縣.', '燕岐縣, 本百濟豆仍只縣.', '支潭縣, 本只彡村.', '支牟縣, 本只馬知.' 등, 그리고 신라의 지명인 '鬐立縣, 本只立縣.' 등에서 '只'는 '岐, 支, 鬐' 등과 동음 관계에 있다. 『삼국사기』 권36, 11장; 권36, 3장; 권37, 17장; 권37, 17장; 권34, 8장. 또한 향가의 '密只(서동요), 唯只(우적가), 必只(칭찬여래가)' 등과 『향약구급방』의 '省只草, 所也只' 등에서도 '只(中/지)'는 'ㄱ'이나 '기'로 읽히며, 역시 향가의 '支'도 '只'와 같은 음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18) '支'의 경우는 위 항목에서 [*계-기]로 재구했으므로 재구음이 이중적이다.

19) '己'는 백제의 지명인 '潔城郡, 本百濟結己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悅城縣, 本百濟悅己縣, 景德王改名, 今定山縣.' 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城'과 이문(異文) 관계에 있다. 『삼국사기』 권36, 3장; 권36, 2장. '己'의 고대국어 한자음은 백제의 다른 지명 표기인 '儒城縣, 本百濟奴斯只縣, 景德王改名, 今因之.'의 기록을 검토하면, '只'와 '城'의 이문이 성립하므로, '己'와 '只'는 음차 표기로서 등가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 권36, 3장. 그러나 '己'는 3等乙類(-의)이고 '只'는 3等甲類(-이)로서 중세국어 한자음의 기준으로 볼 때 완전히 같은 음이 되기는 어렵다. 아마도 고대국어 시기에 있어서 3等 갑을(甲乙)의 차이점은 적용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20) '骨衣奴縣, 骨衣內縣.', '今勿奴郡.', '今勿內郡(一云萬弩).', '思內, 一作詩惱.', '訥祇麻立干, 一作內只王.', '內禮夫智(赤城碑), 弩里夫.' 등의 같은 대상에 대한 다른 표기에 의하여 '內'는 고대의 한자음에서 '奴,

奴[中/노/平, 遇/合1/平/模/泥/乃都/nu, 魚/naː]

弩[中/노/上, 遇/合1/上/姥/泥/奴古/nu, 魚/naː?]

惱[中/노/上, 效/開1/上/晧/泥/奴晧/nɑu, 幽/nuː?]

訥[中/눌/去, 臻/合1/入/沒/泥/內骨/nuət, 物/nuːd]

[*녈-*닐-(*니)](百, 新)

泥[中/니/平, 蟹/開4/平/齊/泥/奴低/niei, 脂/niːl][21]

尼[中/니/平,上, 止/開3/平/脂/泥/女夷/ni, 脂/nil]

熱[中/셜/去, 山/開3/入/薛/日/如列/ɽĭɛt, 月/ȵjed]

日[中/싈/去, 臻/開3/入/質/日/人質/ɽĭĕt, 質/njiɡ]

[*다](新)

度[中/도/上,去, 遇/合1/去/暮/定/徒故/du, 暮/daːɡs, 鐸/daːɡ][22]

大[中/대/上,去,태/上,去, 蟹/開1/去/泰/定/徒蓋/dɑi, 祭/daːds]

[中/?/?, 果/開1/去/箇/定/唐佐/dɑ, 祭/daːds]

[*다-(*도)](百)

刀[中/도/平, 效/開1/平/豪/端/都牢/tɑu, 宵/taːw][23]

[*든](高, 統)

旦[中/단/上, 山/開1/去/翰/端/得按/tɑn, 元/taːns][24]

弩, 惱, 訥' 등과 동음 관계가 성립한다.『삼국사기』권35, 3장; 권35, 1장; 권37, 3장; 권32, 10장;『삼국유사』13장;『삼국사기』권4, 12장.

21) 백제의 지명인 '尼山縣, 本百濟熱也山縣, 景德王改名, 今因之.'와 신라의 지명인 '日谿縣, 本熱兮縣, 或云泥兮.' 등에서 '熱[中/셜]'은 '니[中/니,닐], 泥[中/니], 日[中/싈]' 등과 동음 관계에 있다.『삼국사기』권36, 1장; 권34, 3장. 또한 백제 목간(미륵사지 1호, 716년 이전)의 '日古巨'은 중세국어 '닐굽/닐곱'에 이어진다고 추정된다. 이승재,『漢字音으로 본 백제어 자음체계』, 태학사, 2013, 36면 참조.

22) 新羅의 인명 기록인 '智哲老, 又智度路.', '智大路.', '至都盧葛文王(冷水里碑)' 등에서 '度, 都, 大, 哲' 등이 同音性 異文으로 이해된다.『삼국유사』16장; 55장. 김무림,『고대국어 한자음』, 한국문화사, 2015, 69-72면.

23) 백제 목간(미륵사지 1호)의 '刀土巨'은 마소의 나이를 세는 근대국어의 '다숩'에 연결되는 백제의 수사 표기로 해석된다.『벽온신방』2장. '刀'가 [*다]의 음가임을 암시한다. 이승재, 앞의 책, 2013, 36면.

24) 고구려 지명인 '於支呑, 一云翼谷.', '水谷城縣, 一云買旦忽.', '十谷縣, 一云德頓忽.' 등에서 '呑, 旦, 頓' 등은 '谷'의 의미에 대응하는 표기이다.『삼국사기』권37, 5장; 권37, 4장; 권37, 4장. 향가의 '皃史毛達只將來呑隱, 今呑藪未去遣省如, 好尸日沙也內乎呑是(우적가)'에서 '呑'은 [*든/*듣]의 표기로 이해되고 있다.

頓[中/돈/上,去, 臻/合1/去/慁/端/都困/tuən, 文/tuːns]

呑[中/ᄐᆞᆫ/平, 臻/開1/平/痕/透/吐根/tʰən, 文/qʰlˈɯːn]

[*덕](百, 新)

德[中/덕/去, 曾/開1/入/德/端/多則/tək, 職/tɯːg][25]

得[中/득/去, 曾/開1/入/德/端/多則/tək, 職/tɯːg]

[*리](百, 新)

禮[中/례/上,去, 蟹/開4/上/薺/來/盧啓/liei, 脂/riːʔ][26]

里[中/리/上,去, 止/開3/上/止/來/良士/lĭə, 之/rɯʔ]

理[中/리/上,去, 止/開3/上/止/來/良士/lĭə, 之/rɯʔ]

利[中/리/上,去, 止/開3/去/至/來/力至/li, 至/rids]

[*ᄆᆡ](高, 百, 新)

買[中/ᄆᆡ/上, 蟹/開2/上/蟹/明/莫蟹/mai, 支/mreːʔ][27]

昧[中/ᄆᆡ/上,去, 蟹/合1/去/隊/明/莫佩/muɒi, 隊/mɯːds]

米[中/미/上, 蟹/開4/上/薺/明/莫禮/miei, 脂/miːʔ]

未[中/미/上,去, 止/合3/去/未/微/無沸/mĭwəi, 隊/mɯds]

[*ᄇᆞᆨ](新)

朴[中/박/去, 江/開2/入/覺/滂/匹覺/pʰɔk, 屋/pʰroːg/poːgboːg][28]

---

25) '得安縣, 本德近支.'의 백제 지명, 가락국의 인명인 '茂得'과 '武德'이 동일인을 표기한 것 등에서 '得[中/득]'과 '德[中/덕]'이 동음인 것이 확인된다. 『삼국사기』 권37, 16장; 『삼국유사』 119장.

26) 신라의 왕명인 '儒禮尼師今'이 '儒理'나 '世里智王' 등과 같은 대상을 표기한 것이며, 또한 '弩里夫(사기)'와 '內禮夫智(赤城碑)'는 동일인에 대한 다른 표기이다. 『삼국사기』 권2, 12장; 『삼국유사』 10장. 이러한 표기를 통해서 '禮'는 '理, 里'와 동음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禮'는 백제의 지명 표기인 '解禮縣, 本皆利伊.'에서 '解'와 '皆', '禮'와 '利'의 동음 관계가 성립한다. 『삼국사기』 권37, 17장.

27) '買'는 의미상으로 '水, 川, 井' 등에 대응하며, 특히 고구려 지명에 빈번히 등장한다. 대부분의 지명에서 '買'의 표기는 '水, 川, 井' 등에 대응한다. '內乙買, 一云內尒米.', '買召忽縣, 一云彌鄒忽.' 등의 기록에서 '買'는 '米, 彌'와 동음 관계에 있다. 『삼국사기』 권37, 4장; 권37, 3장. 이와 관련하여 향가의 표기에서 음차 표기로 자주 쓰인 '米'가 대개의 경우 'ᄆᆡ-매'로 읽히는 것은 고대국어 지명 표기에서 '買'와 '米'가 동음 관계임을 확인시켜 준다. 백제의 지명인 '昧谷縣, 本百濟未谷縣, 景德王改名, 今懷仁縣.'에서는 '昧'와 '未'가 동음 관계이다. 『삼국사기』 권36, 4장.

28) 신라의 왕명인 '朴赫居世'는 '始祖, 姓朴, 諱赫居世.'라고 하고, 이어서 '辰人謂瓠爲朴, 以初大卵如瓠. 故以朴爲姓.'이라고 하여 '朴'에 대한 성(姓)의 유래를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은 민간어원에 불과하다. 『삼국사기』 권1, 1장. 오히려 정확한 어원 풀이는 『삼국유사』의 '赫居世王'에 대한 주석에 '盖鄕言也. 或作弗矩內王, 言光明理世也.'라고 한 것이 이치에 맞을 것이다. 『삼국유사』 44장. 그러므로

[*번-*븐](新)

飯[中/반/上,去, 山/合3/去/願/奉/符万/bĭwɐn, 元/bons][29]

芬[中/분/平, 臻/合3/平/文/敷/撫文/pʰĭuən, 文/pʰɯn]

[*벌-*블](新)

發[中/발/去, 山/合3/入/月/非/方伐/pĭwɐt, 月/pad][30]

伐[中/벌/去, 山/合3/入/月/奉/房越/bĭwɐt, 月/bad]

弗[中/블/去, 臻/合3/入/物/非/分勿/pĭuət, 物/pɯd]

佛[中/불/去, 臻/合3/入/物/奉/符勿/bĭuət, 物/bɯd]

[*ᄇᆞᆯ-*벌](高)

別[中/별/去, 山/開3/入/薛/幫(並)/方別(皮列)/pĭɛt(bĭɛt), 月/pred(bred)][31]

[*ㅂ](新)

寶[中/보/上, 效/開1/上/晧/幫/博抱/pɑu, 幽/puː?][32]

巴[中/파/平, 假/開2/平/麻/幫/伯加/pa, 魚/praː]

[*시-*ㅿ](高, 統)

似[中/ㅅ/上, 止/開3/上/止/邪/詳里/zĭə, 之/ljɯ?][33]

'朴'의 고대국어 한자음은 중세국어의 '박(瓠子)'에서 찾기보다는 'ᄇᆞᆰ다'에서 찾을 수 있다. 『훈몽자회』 상, 8장. 이에 대해서는 같은 覺韻인 '學'의 중세국어 한자음이 [ᄒᆞᆨ]인 것이 참고된다.

29) 신라의 인명인 '國飯, 一云國芬.'에서 '飯'은 '芬'과 동음이다. 『삼국사기』 권5, 7장.

30) 신라의 인명인 '伐休, 一作發暉.'에서 '發'과 '伐'은 동음임이 분명하며, 신라의 관명인 '或云舒發翰, 或云舒弗邯.'에서는 '發'과 '弗'이 역시 동음임이 확인된다. 『삼국사기』 권2, 2장; 권38, 1장. 아울러 지명인 '佛地, 或作發智村, 俚云弗等乙村.'에서도 '發, 佛, 弗'의 동음 관계가 확인된다. 『삼국유사』 195장.

31) 고구려 지명인 '七重縣, 一云難隱別.'에서 음차인 '別'은 '重'의 의미인 중세국어 'ᄇᆞᆯ'에 대응한다. 『삼국사기』 권37, 3장; 『삼강행실도』 효, 31장. '別'의 중세국어 한자음 [별]과 비교하면, 고구려 한자음에서는 반모음 [j]가 없었다고 추정되므로 상고음 기반으로 해석된다.

32) 신라의 인명에서 '新寶王后'는 '神巴夫人'과, '貴寶夫人'은 '貴巴夫人'과, '古巴里(감산사미륵보살조상명)'는 '古寶里(감산사아미타여래조상명)'와 각각 동일인이므로, 고대국어 한자음에서 '巴'와 '寶'의 동음을 논의하게 된다. 『삼국사기』 권9, 12장; 『삼국유사』 25장; 『삼국사기』 권10, 19장; 『삼국유사』 27장. 신라의 지명인 '眞寶縣, 本珍巴火縣, 景德王改名, 今甫城.'에서도 '巴'와 '寶'의 동음 관계가 성립한다. 『삼국사기』 권34, 4장.

33) 고구려 지명인 '似城, 本史忽.'에서 '史'와 '似'가 동음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역시 고구려 지명인 '悉直郡, 一云史直.'에서는 '史'와 '悉'이 대응한다. 『삼국사기』 권37, 16장; 권37, 6장. 지섭(止攝)의 치두음(齒頭音/精組) 계열과 치상음(齒上音/莊組) 계열은 중세국어 한자음에서 모음이 [-ᄋᆡ]로 나타나지만, 고대국어 한자음으로는 모음이 [-이]로 소급되므로, '史'의 고대국어 한자음을 [*시/si]로 재구할 수 있다. 또한 '史'와 '悉'의 대응에서는 운미를 제외한다면 [시]가 되어 동음성이 확보된다. '悉'의

史[中/ㅅ/上,去, 止/開3/上/止/生/踈士/ʃĭə, 之/srɯʔ]

悉[中/싈/去, 臻/開3/入/質/心/息七/sĭĕt, 質/sid]

[*시](新, 統)

士[中/ㅅ/上,去, 止/開3/上/止/崇/鉏里/dʒĭə, 之/zrɯʔ][34]

之[中/지/平, 止/開3/平/之/章/止而/tɕĭə, 之/tjɯ]

次[中/ㅊ/上,去, 止/開3/去/至/淸/七四/tsʰi, 脂/sɲʰis]

[*시](新)

斯[中/ㅅ/平, 止/開3/平/支/心/息移/sĭe, 支/se][35]

自[中/ㅈ/上,去, 止/開3/去/至/從/疾二/dzi, 至/ɦljids]

[*사-*서-*소](高, 百)

所[中/소/上,去, 遇/合3/上/語/生/踈擧/ʃĭo, 魚/sqʰraʔ][36]

沙[中/사/平, 假/開2/平/麻/生/所加/ʃa, 歌/sraːl/sraːls]

朔[中/삭/去, 江/開2/入/覺/生/所角/ʃɔk, 鐸/sŋraːg]

[*시-*ㅿ](高, 百, 統)

고대국어 한자음이 [*싈/sil]이었다면, 舌音인 '直'의 앞에서 운미 [-l/-ㄹ]의 탈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향가에서 '史'는 주로 마지막 음절(또는 조사나 어미 연결형)을 나타내는 표기로 사용되었다.

34) 신라의 관명인 '吉之智(鳳坪碑), 吉士, 或云稽知, 或云吉次.' 등에서 '次'는 '士, (知), 之' 등과 동음 관계에 있다. 『삼국사기』 권38, 2장. '次, 士, (知), 之' 등이 同音을 이룰 음가는 [지] 이외의 것을 생각하기 어렵다. 향가에서 '次'는 '栢史叱枝次高支好(讚耆婆郎歌), 蓬次叱巷中宿尸夜音有叱下是(慕竹旨郎歌)' 등에서 '枝次'가 '가지'로, '蓬次'가 '다봊/다보지'로 읽힌다. 향가에서 '次'는 [지]의 音價에 해당되는 표기이다.

35) 신라의 지명인 '火王郡, 本比自火郡, 一云比斯伐.'에서 '自'는 '斯'와 동음 관계에 있다. 『삼국사기』 권34, 7장.

36) 고구려 지명인 '朔邑縣, 本高句麗所邑豆縣, 景德王改名, 今朔寧縣.'에서 운미를 괄호에 넣는다면 '所'와 '朔'의 동음 관계가 성립한다. 『삼국사기』 권34, 4-5장. 한편으로는 '所'의 上古音에서 董同龢의 재구음이 [sag]인 것이 주목된다. 고구려 지명인 '赤木縣, 一云沙非斤乙.'과 백제의 지명인 '赤島縣, 本百濟所比浦縣, 景德王改名, 今德津縣.' 등에서 '赤'의 의미에 대응하는 '沙非'와 '所比'를 찾을 수 있다. 『삼국사기』 권37, 5장; 권36, 3장. 아울러 고구려 지명인 '赤城縣, 本高句麗沙伏忽, 景德王改名, 今陽城縣.'에서는 改名의 과정에서 '沙伏'을 '赤'으로 대응시킨 것으로서, '沙非, 所比, 沙伏' 등이 동일한 단어의 형태를 표기하고 있다. 『삼국사기』 권35, 2장. '沙非, 所比, 沙伏' 등은 음차 표기로 이해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고대국어 한자음에서 '所-沙'의 동음성과 '非-比-伏'의 동음성이 성립된다. '所-沙'의 同音性은 한자음 '所'의 上古音을 고려할 때 [sa/사]에서 찾는 것이 옳다. 다만 백제의 지명인 '所夫里郡, 一云泗沘.'에서 '所夫'와 '泗沘'의 대응은 동음의 기반에서 논의되어야 하지만, 한자음의 차원에서 '所'와 '泗'의 동음 관계를 실증하기가 쉽지 않다. 『삼국사기』 권37, 8장.

兒[中/ᄂᆞ/平, 止/開3/平/支/日/汝移/ɽǐe, 支/ŋje][37]

次[中/ᄎᆞ/上,去, 止/開3/去/至/淸/七四/tsʰi, 脂/sŋʰis]

[*연](高, 新)

迎[中/영/平,上,去, 梗/開3/平/庚/疑/語京/ŋǐɛŋ, 陽/ŋraŋ][38]

延[中/연/平, 山/開3/平/仙/以/以然/jǐɛn, 元/lan]

[*저](高, 統)

助[中/조/上,去, 遇/合3/去/御/崇/牀據/dʒǐo, 魚/zras][39]

才[中/ᄌᆡ/平, 蟹/開1/平/咍/從/昨哉/dzɒi, 之/zlɯ:]

[*자](百)

佐[中/좌/上,去, 果/開1/去/箇/精/則箇/tsɑ, 歌/ʔsa:ls][40]

上[中/샹/上,去, 宕/開3/上/養/禪/時掌/zǐaŋ, 陽/djaŋʔ/djaŋs]

[*뎡](新)

訂[中/뎡/上, 梗/開4/去/徑/端/丁定/tieŋ, 耕/te:ŋs][41]

---

37) 백제의 지명인 '烏兒縣, 本百濟烏次縣, 景德王改名, 今定安縣.'에서 '次'와 '兒'는 동음 관계에 있다. 고구려 지명인 '母城郡, 一云也次忽.'에서 '也次'는 중세국어 '어ᄉᆡ(母)'에 이어지는 표기이므로, 참조할 수 있다. 『삼국사기』 권36, 8장; 권37, 5장; 『석보상절』 권6, 5장. 향가에서 '母史(안민가)'가 '어ᄉᆡ'에 해당한다는 것도 참고할 수 있다.

38) 고구려 안원왕(安原王)의 이름인 '寶延'은 '寶迎'으로도 표기되며, 신라의 인명인 '延帝夫人'은 '迎帝夫人'으로도 표기된다. 『삼국사기』 권19, 6장; 『삼국유사』 17장; 『삼국사기』 권4, 1장; 『삼국유사』 16장. '迎'과 '延'의 동음성은 경섭(梗攝)의 운미 [-ŋ/-ㅇ]이 [-n/-ㄴ]으로 나타난 경우가 있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迎'의 중세국어 한자음이 『진언권공(眞言勸供)』에서 '연'으로 나타난 경우가 있으나 중세국어 한자음으로는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39) 고구려 지명인 '助攬郡, 一云才攬.'에서 '助'는 '才'와 동음 관계로 이해된다. 『삼국사기』 권37, 6장. 중고음을 기준으로 하면 '助[dʒǐo]'와 '才[dzɒi]'는 중세국어 한자음과 같은 차이가 드러나지만, 상고음을 참조하면 '助'와 '才'의 동음 관계가 암시된다. 상고음에서 중고음으로의 핵모의 변화를 적용하면 '助'는 [a]에서 [o]로 이동하였고, '才'는 [ɯ]에서 [ɒ]로 이동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음사각도에서 이와 같은 모음추이(母音推移, vowel shift)를 추적하게 되면, 중간 단계에서 '助'와 '才'의 核母가 만나게 된다. 중간에서 만나는 지점의 음가는 대체로 [ə]에 해당한다. 고구려 지명에서 나타난 '助'와 '才'의 동음 관계는 상고음과 중고음의 중간 단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자료이다. 신라의 목간(안압지출토, 8세기 중후반)에 나오는 '助史'가 중세국어의 '젓(醢)'에 해당한다는 것도 '助'의 한자음이 [*저]임을 보여준다. 『사성통해』 상, 45장.

40) 백제의 지명인 '佐魯縣, 本上老.'에서는 '佐'와 '上'이 대응한다. 『삼국사기』 권37, 17장. '佐'와 '上'의 동음성은 한자음의 측면에서는 쉽게 확인하기 어렵지만, 이두의 독음에서 그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이두에서 '지급(支給)'을 의미하는 '上下'는 '자하(/차하)'로 읽으며, '바치는 것'을 뜻하는 '捧上'은 '받자'로 읽기 때문이다.

證[中/증/上, 曾/開3/去/證/章/諸應/tɕĭəŋ, 蒸/tjɯŋs]

[*뎍](高)

直[中/딕/去, 曾/開3/入/職/澄/除力/ɖĭək, 職/dɯg][42]

陟[中/텩/?, 曾/開3/入/職/知/竹力/ʈĭək, 職/tɯg]

[*뎐](百, 新)

眞[中/진/平, 臻/開3/平/眞/章/職鄰/tɕĭěn, 眞/ʔljin][43]

貞[中/뎡/平, 梗/開4/去/徑/端/丁定/tieŋ, 耕/teŋ]

[*소(쇼)](高)

肖(利)[中/쵸/上,去, 效/開3/去/笑/心/私妙/sĭɛu, 宵/slews][44]

屑[中/셜/去, 山/開4/入/屑/心/先結/siet, 質/slɯ:d]

[中/?/?, 臻/合1/入/沒/心/蘇骨/suət, 物/slu:d]

[*털(덜)](高)

鐵[中/텰/去, 山/開4/入/屑/透/他結/tʰiet, 質/lʰi:g, lʰi:d][45]

[*바](高)

波[中/파/平, 果/合1/平/戈/幫/博禾/puɑ, 歌/pa:l][46]

---

41) 신라의 왕명인 '智證', '智訂麻立干'에서 '訂'과 '證'이 동음 관계에 있다. 『삼국유사』 55장; 16장.

42) 고구려의 지명인 '三陟郡, 本悉直國.'에서 '直'은 '陟'과 동음인 것으로 이해된다. 『삼국사기』 권35, 12장. 특히 '直'과 '陟'은 중고음에서 성모의 유무성(有無聲)에만 차이가 있고 운모는 동일하여, 유무성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을 국어 한자음에서 동음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直'과 '陟'의 중세국어 한자음 운모에서 [역]이 [익]보다 옛 층위의 음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河野六郎, 앞의 책, 1968.

43) 백제의 지명인 '眞峴縣, 眞一作貞.', '眞峴縣, 一云貞縣.', 그리고 신라의 인명인 '眞慈, 一作貞慈.', '眞矯夫人'/'貞矯夫人' 등에서 '貞'은 '眞'과 동음 관계에 있다. 『삼국사기』 권36, 3장; 권37, 8장; 『삼국유사』 153장; 『삼국사기』 권10, 20장; 『삼국유사』, 27장.

44) 고구려 지명인 '屑夫婁城, 本肖利巴利忽.'에서 '肖利'는 '屑'과 대응한다. 『삼국사기』 권37, 16장. 한어(漢語)에서 '屑'은 진섭(臻攝 沒韻)과 산섭(山攝 屑韻)이 있는데, 중세국어 한자음은 산섭(山攝)에 해당한다. 그러나 고구려 지명에서 '肖利'에 대응하는 '屑'은 진섭(臻攝 沒韻)에 속하는 한자음으로 이해해야 한다.

45) 고구려 지명인 '鐵圓郡, 一云毛乙冬非.'에서 '鐵'은 '毛乙'과 대응한다. 『삼국사기』 권37, 4장. '毛乙'은 중세국어 '털'을 표기한 것이다. 특히 4등운인 '鐵'에서 개모 [j]가 발달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다만 고대국어 한자음에서 유기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재구음은 [*뎔]이 될 것이다.

46) 고구려 지명인 '鵂鶹城, 一云租波衣, 一云鵂巖郡.', '夫斯波衣縣, 一云仇史峴.', '文峴縣, 一云斤尸波兮.' 등에서 '波衣, 波兮'는 의미상 '峴, 巖' 등에 해당하여 중세국어 '바회(巖)'의 형태와 관련된다. 『삼국사기』 권37, 4장; 권37, 5장; 권37, 5장; 『석보상절』 권6, 44장. 역시 고구려 지명인 '海曲縣, 本高句麗波且縣.'에서 '波且'는 '波旦'의 오기(誤記)로 이해되므로, 이에 따라 '波旦'은 중세국어 '바ᄅᆞᆯ(海)',

[*골](高, 百, 新)

忽[中/홀/去, 臻/合1/入/沒/曉/呼骨/huət, 物/hmɯːd][47]

나. 향찰의 음차 표기 한자음이 중세국어 한자음과 다른 것[48]

[*든] 等[中/등/上, 曾/開1/上/等/端/多肯/təŋ, 蒸/tɯːŋʔ][49]

[*리] 呂[中/려/上, 遇/合3/上/語/來/力擧/lǐo, 魚/g・raʔ][50]

[*ᄆᆡ] 米(앞 항목 참조)

[*ᄆᆞᆯ] 末(앞 항목 참조)

[*시] 賜[中/ㅅ/上,去, 止/開3/去/寘/心/斯義/sǐe, 賜/sleːgs][51]

'바다ㅎ(海)' 등의 형태와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 권35, 11장; 『용비어천가』 2장; 『월인석보』 권9, 22장.

47) 고구려 지명인 '甲忽 : 穴城, 內米忽 : 池城, 仇次忽 : 敦城, 買忽 : 水城, 蕪子忽 : 節城, 史忽 : 似城, 漢忽 : 漢城' 등의 대응 표기에서 '忽'은 '城'의 의미에 대응하면서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여러 논저에서 '忽'의 고대국어 한자음을 [*골]로 재구하였는데, 이것은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권6, 58장에서 '召忽島'를 '죠콜셤'으로 표기한 것이 유력한 근거가 된다. 백제의 지명 표기인 '寶城郡, 本百濟伏忽郡.', '辟城縣, 本辟骨.' 등을 통해서 '城'에 대응하는 '骨'을 찾을 수 있는데, 이 경우의 '骨[中/골]'이 '忽'의 음과 같은 것으로 파악된다. 『삼국사기』 권36, 8장; 권37, 17장. 신라의 인명인 '骨正, 一作忽爭.'에서도 '骨'과 '忽'의 동음 관계가 성립한다. 『삼국사기』 권2.

48) 이준환, 「鄕札 表記字 漢字音 硏究의 回顧와 展望」, 『口訣硏究』 제26집, 구결학회, 2011에서는 '鄕歌 音借 表記 用字 목록'에서 100자를 제시하였다.

49) 향가(도천수관음가)에 등장하는 어휘 '一等'은 'ᄒᆞᆫ든'으로 재구되는데, 같은 어휘가 제망매가(祭亡妹歌)에서는 '一等隱'으로 말음첨기(末音添記)가 되어 있어서 '一等'이 'ᄒᆞᆫ든'으로 해독된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또한 '直等隱心音矣命叱使以惡只(도솔가)'의 '直等隱'이 '고ᄃᆞᆫ'으로 해독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증섭(曾攝)과 경섭(梗攝)의 운미는 중고음을 전후하여 경구개 운미 [-ɲ/-c]로 재구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 河野六郎, 앞의 책, 1968, 436-438면; Hashimoto, J. Mantaro, "Internal Evidence for Ancient Chinese Palatal Endings", *Language*, Vol.46, No.2,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1970. 아울러 증섭(曾攝)의 구개성 운미에 대한 것은 '安舜羅紀作勝', '一作賓之又賓子又氷之' 등의 기록을 통해서도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삼국사기』 권22, 11장; 『삼국유사』 44장. 즉 증섭(曾攝)인 '勝'과 '氷'이 운미 [-n]의 진섭(臻攝)인 '舜, 賓' 등과 동음성 표기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섭(梗攝)에 있어서도 '寶延'과 '寶迎', '延帝夫人'과 '迎帝夫人'의 표기에 의하여 '延'과 '迎'이 동음 관계에 있다. 『삼국사기』 권19, 6장; 『삼국유사』 17장; 『삼국사기』 권4, 1장; 『삼국유사』 16장.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等'의 고대국어(특히 향가에 있어서) 한자음을 운미가 [-n]인 [*든/tɐn]으로 재구할 수 있다.

50) '呂'는 균여(均如)의 향가에서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慕呂'는 '그리-'로, '邀呂'는 '모리-'로, '有叱下呂'는 '잇샤리'로, '世呂'는 '누리'로, '哀呂舌'은 '셜ᄇᆞ리여'로 해독되고 있다. 金完鎭, 『鄕歌解讀法硏究』, 서울대 출판부, 1980.

51) '賜'는 향가에서 선어말어미로 빈번히 쓰였다. '吾肹不喩慚肹伊賜等(헌화가), 臣隱愛賜尸母史也(안민가), 郎也持以支如賜烏隱(찬기파랑가), 西方念丁去賜里遣(원왕생가), 四十八大願成遣賜去(원왕생가)'

[*져] 齊[中/제,ᄌᆡ,ᄌᆞ/平, 蟹/開4/平/齊/從/徂奚/dziei, 脂/zliːi][52]

[*져] 制[中/제/上, 蟹/開3/去/祭/章/征例/tɕĭɛi, 祭/kjeds][53]

[*기/ㄱ] 只(앞 항목 참조)

[*기/ㄱ] 支(앞 항목 참조)

[*시-지] 次(앞 항목 참조)

[*ᄉᆞᆯ-ᄉᆞᆯ] 察[中/찰/去, 山/開2/入/黠/初/初八/tʃʰæt, 月/shreːd][54]

[*존/즌] 寸[中/촌/上, 臻/合1/去/慁/淸/倉困/tsʰuən, 文/shuːns][55]

[*ᄃᆞᆫ] 呑(앞 항목 참조)

[*바] 巴(앞 항목 참조)

[*바] 波(앞 항목 참조)

다. 이두 및 구결 한자음이 중세국어 한자음과 다른 것[56]

[*누-ᄂᆞ] 內(앞 항목 참조)

[*나] 乃[中/내/上,去, 蟹/開1/上/海/泥/奴亥/nɒi, 之/nɯːʔ]

[*ᄃᆞᆫ] 等(앞 항목 참조)

[*마] 每[中/ᄆᆡ/上, 蟹/合1/上/賄/明/武罪/muɒi, 之/mɯːʔ]

[*며] 彌[中/미/平, 止/開3/平/支/明/武移/mĭe, 歌/mnel]

[*자] 上(앞 항목 참조)

[*시] 賜(앞 항목 참조)

등에 사용된 '賜'가 주체존대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시-'로 읽히는 예들이다.

52) 향가에서 종결어미로 쓰인 '齊'는 [져]로 읽는다. 향가의 '齊'는 '制'와 음가가 같지만, 쓰임의 폭이 더 넓다. '齊'가 속한 해섭(蟹攝) 제운(齊韻)의 운모는 중세국어 한자음에서 [-여]와 [-예]로 나뉘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河野六郎, 1968, 앞의 책에서 [-여]를 고형(古形)으로, [-예]를 신형(新形)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견해는 '齊, 制'의 고대국어 한자음이 [*졔]보다는 [*져]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53) 균여(均如)의 향가에서 '制'는 종결어미 '-져'로 읽는다.

54) 향가에서 거듭 쓰인 '秋察(제망매가, 원가, 청전법륜가)'은 중세국어 'ᄀᆞᆯᄒᆞ'에 이어지는 표기이다. 중세국어에 'ᄀᆞᆯᄒᆞ'의 형태도 있다. 『칠대만법』 13장.

55) 균여의 향가에서 '惡寸(참회업장가, 보개회향가)'은 중세국어 '머즌'에 해당되는 표기이다. 『석보상절』 권9, 8장. 이것은 '寸'의 고대국어 한자음 초성이 유기음이 아닌 [*즌(또는 *존)]이었음을 알려 준다.

56) 김무림, 「高麗 時代 口訣 漢字音의 硏究」, 『口訣硏究』 제5집, 구결학회, 1999; 「口訣 및 吏讀 漢字音 硏究의 回顧와 展望」, 『口訣硏究』 제26집, 구결학회, 2011의 종합적인 논의를 참조하였다.

[*ㅅ] 史(앞 항목 참조)
[*디] 喻[中/유/平,上, 遇/合3/去/遇/以/羊戍/jĭu, 侯/los]
[*져] 齊(앞 항목 참조)
[*기-ㄱ] 只(앞 항목 참조)
[*도-두] 投[中/투/平, 流/開1/平/侯/定/度侯/dəu, 侯/do꞉][57]
[*바] 波(앞 항목 참조)
[*빌] 必[中/필/去, 臻/開3/入/質/幫/卑吉/pĭĕt, 質/plig]
[*괄] 活[中/활/去, 山/合1/入/末/見/古活/kuɑt, 月/gɔ꞉d/kɔ꞉d]
[*히-기] 兮(앞 항목 참조)

3. 고대국어 한자음의 기층

지금까지 열거한 예들은 고대국어 한자음의 실상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 기반이 되는 한어(漢語)로는 중고음이 주요 기층으로 보이지만, 중고음 이전의 기층을 보이는 것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이다. 즉 고대국어의 이표기(異表記)나 향가의 한자음을 기준으로 하면, 10% 내외의 한자음이 중고음 이전의 기층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통일신라의 표기를 통한 재구음을 살펴보면, 삼국의 한자음은 차이보다는 공통점이 더 드러난다. 어느 한 나라의 표기가 중세국어 한자음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다른 나라에서는 동일한 성격의 표기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고유한 한자음인지 알 수 없다. 이러한 난점(難點)을 염두에 두면서, 앞에서 재구한 고대국어 한자음을 대상으로 기층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라. 고대국어 한자음의 기층에 대한 세부 논의

① 상고음의 기층을 암시하는 경우

㉠ '客'과 '各'의 고대국어 한자음은 [*각]으로 재구된다. 위진남북조 시

57) '投, 波, 必, 活' 등의 재구음 성모는 바로 중고음으로 해석되므로 논의가 필요하지 않다.

대에도 '客'의 운부(韻部)는 석부(錫部)이며, '各'의 운부는 탁부(鐸部)로서 서로 다르다. 그러나 상고음에서 이들은 같은 탁부(鐸部)이다.

㉡ '居'와 '矩'의 고대국어 한자음은 [*가]이거나 [*거]일 것이다. 중고음에서 이들은 우섭(遇攝 魚韻)과 유섭(流攝 厚韻)으로 갈리지만, 상고음에서는 모두 어부(魚部[-a])이므로 상고음 기층으로 이해된다.

㉢ '刀' 및 '度'의 고대국어 한자음은 [*다]로 재구되는 경우가 있다. '刀'가 속한 위진남북조의 운부는 宵部[-ou]이며, 상고음 운부는 역시 宵部[-aːw]이지만, 핵모가 [a]인 것에 주목할 수 있다. '度'가 속한 위진남북조의 운부는 模部[-o]이지만, 상고음 운부는 暮部의 [daːgs]이거나, 鐸部의 [daːg]으로서 핵모가 [a]인 것이 참조된다. '刀, 度'의 고대국어 한자음이 [*도]일 경우는 중고음 기반이며, [*다]보다는 후대의 음이다.

㉣ '泥'와 '尼'의 고대국어 한자음은 [*녈-*닐-(*니)]로 재구되며, 운미 [-ㄹ]의 가능성은 상고음에서 찾을 수 있다.

㉤ '別'의 고구려 한자음을 [*ᄇᆞᆯ-*벌]로 재구하게 되면 개모가 발달하지 않은 상고음에서 그 기반을 찾아야 한다.

㉥ '證'의 고대국어 한자음은 '訂'에 맞추어 [*뎡]으로 재구하게 되며, 성모가 파찰음이 아닌 파열음인 것에 초점이 있다. 위진남북조 시대에 '證'의 성모는 이미 파찰음으로 변화하였으므로, 상고음 기반으로 이해된다.

㉦ '只'와 '支'의 고대국어 한자음은 [*기]로 재구되며, 상고음까지 소급시킬 수 있으나, 한경호[58]의 견해에 따르면 동한(東漢)을 전후한 시기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동한은 위진남북조 바로 이전이므로, 상고음 기층으로 처리해 둔다. 여기에 더하여 '己(中/긔), 期(中/긔), 其(中/기)' 등의 고대국어 한자음도 모두 [*기]인 것으로 이해된다. 지섭(止攝 之韻)은 3등운으로서 갑류(甲類)와 을류(乙類)로 나뉜다. 중세국어 한자음에서 갑류는 치음을 제외하고는 [-이]로 반영되는 것이 원칙이고, 을류는 치음을 제외하면 [-의]로 반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을류에 속한 '其'의 중세국어 한자음이

58) 한경호, 「고대 韓國漢字音에 반영된 東漢~六朝代 中國音(1)」, 『口訣硏究』 제24집, 구결학회, 2010.

[기]인 것은 예외에 속한다. 아울러 견모(見母)의 같은 반절자인 '基'의 중세국어 한자음 [긔], 그리고 군모(群母)의 같은 반절자인 '期'의 중세국어 한자음 [긔]를 고려할 때, '其'의 중세국어 한자음 [기]는 예외적인 것이다. 그러나 고대국어 한자음에서 3등 갑을(甲乙)의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면 '其'의 중세국어 한자음 [기]는 고대국어 한자음이 유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己(中/긔)'는 백제의 지명인 '潔城郡, 本百濟結己郡, 景德王改名, 今因之.'[59], '悅城縣, 本百濟悅己縣, 景德王改名, 今定山縣.'[60] 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城'과 이문(異文) 관계이다. '己'와 '城'의 이문(異文)에 의하여 백제어에서 '己'의 한자음이 '城'의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己'의 고대국어 한자음은 백제의 다른 지명 표기인 '儒城縣, 本百濟奴斯只縣, 景德王改名, 今因之.'[61]의 기록을 검토하면, '只'와 '城'의 이문(異文)이 성립하므로, '己'와 '只'는 음차 표기로서 등가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己'는 3등 을류[-의]이고 '只'는 3등갑류[-이]로서 중세국어 한자음의 기준으로 볼 때 같은 음이 되기는 어렵다. 아마도 고대국어 시기에 있어서 3등 갑을의 차이점은 적용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대 일본어의 'き[kï, 城]'는 백제어의 차용으로 해석되고 있다.[62]

◎ '眞'과 '貞'의 고대국어 한자음을 [*뎐]으로 재구하였다. 중고음 이전으로 소급하면, '眞'과 '貞'은 聲母가 각각 [tɕ](경구개 파열음)와 [t](치경 파열음)으로서 약간의 조음위치의 차이가 있으나 파열음인 설음(舌音)으로서 같으며, 개모(介母)와 핵모는 거의 [je]로서 같다. 운미(韻尾)는 '眞[-n]'과 '貞[-ŋ]'으로서 차이가 있으나, 권인한[63]에서 Hashimoto[64]의 견해를 긍정적으로 인용한 바와 같이 '貞'의 중고음 운미를 경구개 비음인 [-ɲ]으로 재구하게 되면, '眞'과 '貞'의 고대국어 한자음은 [*뎐]으로 재구되어 동음성을 확보할 수 있다.

---

59) 『삼국사기』 권36, 3장.
60) 『삼국사기』 권36, 2장.
61) 『삼국사기』 권36, 3장.
62) 大野晉・佐竹昭廣・前田金五郎 編, 『岩波 古語辭典』, 岩波書店, 1974, 349면 참고.
63) 권인한, 「한자음의 변화」, 『國語史硏究』, 태학사, 1997, 306면.
64) Hashimoto, J. Mantaro, op. cit.

㉣ '喻'가 향찰 및 이두에서 [디]로 읽히는 것은 상고음 성모의 영향임이 분명하다. '喻'의 상고음이 [*dju]로 재구되는 경우도 있다.[65] 중고음에서 '俞'를 성부로 하는 '逾, 榆, 愉, 踰, 揄, 諭, 喻' 등은 성조를 제외하면 모두 음가가 같다. 그런데 한어 방언(漢語方言)에서 '俞'의 관화음은 '喻'와 마찬가지로 [y]이지만, 민방언(閩方言)에서는 [dzu]로 발음되어 성모 [d]의 흔적이 남아 있다. 아울러 '俞[中/유]'를 성부로 하는 글자에서 '偸[中/투], 媮[中/?], 鍮[中/듀]' 등의 중고음이 [tʰəu]인 것도 참고할 수 있다.

② 전기 중고음(위진남북조음 포함) 기층

㉠ 해섭(蟹攝)과 지섭(止攝)이 상통하는 경우: 해섭인 '禮'가 지섭(止攝)인 '里, 理, 利' 등과 동음이 되는 현상, 그리고 해섭(蟹攝)인 '買, 昧, 米'가 지섭(止攝)인 '未'와 동음이 되는 현상이 고대국어 한자음에 나타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禮'가 [*리]로 재구되며, '買, 昧, 米'는 [*ᄆᆡ]로 재구되어 서로 방향이 다르다는 점이다. 아마도 이것은 설음과 순음이라는 초성의 성격에 따른 반영 양상의 차이로 보인다.

㉡ '禮'와 마찬가지로 우섭(遇攝)인 '呂'의 고대국어 한자음도 [*리]로 재구된다. '禮'는 위진남북조 시대에 이미 운미 [-i]가 생겼으므로 참조할 수 있으나, '呂'의 경우는 상고음이 핵모 [a]인 어부(魚部)이며, 위진남북조와 수당대의 음에 큰 차이가 없다. 다만 한장대역(漢藏對譯) 자료에서 이들 운부에 속한 자(字)의 핵모가 [i]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66] 그러므로 이러한 예외적 한자음이 중고음 시기에 존재하여 고대국어 한자음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呂'는 균여의 향가에 나타나므로 비교적 후기음의 반영일 가능성이 높다.

㉢ '飯'은 合口인 원운(願韻)에 속하지만, 순음(脣音)은 개구로 처리된다. 중세국어 한자음에서 元阮願月韻이 개구일 경우에 순음의 운모는 경순음화를 반영하여 개모를 탈락시킨 [-언/-얼]로 반영되는 것이 정칙이며, 예외적으로

65) 周法高, 『漢字古今音彙』, 香港中文大學出版社, 1974에 의하면 '喻'의 상고음은 [dju](Karlgren), [riew](周法高) 등이다.

66) 高田時雄, 『敦煌資料による中國語史の研究』, 東京: 創文社, 1988, 304-419면의 자료대음표 참조.

[-안/-알]인 경우도 있으나, 이것은 후대의 음을 반영한 것이다.[67] '芬'의 중세국어 한자음은 [분]으로 반영되어 합구 개모가 반영되어 있는 듯하지만, 정칙의 반영은 개구음인 [븐]으로 된다고 하는 것이 옳다. '飯'이 속한 운(韻)의 중세국어 한자음에서 [반]보다는 [번]이 좀 더 역사적 유래가 오래인 것이므로, '飯'의 고대국어 한자음을 [*번]으로 재구하는 것이 무난하다. '芬'의 정칙 한자음 [븐]을 고려하면 고대국어에서 모음 [ə/어]와 모음 [ɨ/으]의 비변별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된다. 고대국어의 모음 체계에 대한 명확한 논거를 내세울 수 없는 상황에서 고대국어의 모음 [ə/어]와 모음 [ɨ/으]의 상통의 가능성을 제기해 두는 것은 잠정적인 해결책이다. 고대국어 한자음에서 '飯'과 '芬'의 재구음을 동음으로 해야 될 경우에는 [*븐]보다는 [*번]으로 하는 것이 언어학적 일반성의 관점에서 합리적이다.

㉣ '發'과 '伐'은 방모(幫母)와 병모(並母)로서 성모의 차이는 있으나, 『광운(廣韻)』에서 같은 월운(月韻)에 속한다. 중세국어 한자음에서 월운(月韻)의 순음자(脣音字) 운모는 [-알]과 [-얼]의 두 종류가 있는데, [-알]이 근대음적 경향을 반영한 신형이다. 고대국어 한자음에서 같은 운인 '發'과 '伐'의 동음 관계는 충분히 성립되며, 그 동음의 기준은 중세국어 한자음을 척도로 했을 때, 신형으로 이해되는 [발/發]보다는 구형인 [벌/伐]에서 찾는 것이 理致에 맞다. 다음으로 '發'과 '弗/佛'의 관계는 '發'의 고대국어 한자음을 [*벌]로 재구하고, '佛/弗'을 [*블/*ᄇᆞᆯ]로 재구하여, 고대국어에서 모음 [어/ə], [으/ɨ], [ᄋᆞ/ʌ] 등의 비변별이나 또는 상통으로 이해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온건한 방법이다.

㉤ '兒(中/ㅅ), 次(中/ㅊ), 賜(中/ㅅ)' 등의 고대국어 한자음은 핵모가 [i]인 것이 특징이다. 지섭(止攝)의 치두음자가 중세국어 한자음에서 [-ᄋᆞ]로 반영된 것은 후기 중고음을 반영한 대표적인 경우이다. 성모의 반영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들 고대국어 한자음의 기층은 전기 중고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 '齊, 制'의 고대국어 한자음은 [*졔]로 재구된다. 이러한 한자음의 기층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중세국어 한자음에서 제운(祭韻)과 제운(齊

67) 중세국어 한자음에서 元阮願韻인 '藩, 煩, 繁, 幡, 燔, 翻, 旛, 樊' 등은 '번', '蕃, 反' 등은 [반/번], '返, 飯' 등은 [반]이다.

韻)의 운모가 [-예]인 것과 [-여]인 것으로 갈리는데, 일반적으로 [-예]보다는 [-여]가 고형(古形)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중세국어 한자음의 기층보다는 앞선다고 해야 한다.

㉦ '直'과 '陟'을 [*뎍]으로 재구하였다. 직운(職韻)의 핵모 [ə]가 소거되는 것은 중고음 후기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直'의 중세국어 한자음 [딕]은 [*뎍]보다는 후대의 음임이 분명하다. '德'과 '得'에도 같은 해석이다. 중세국어 한자음은 '德[中/덕]'과 '得[中/득]'으로 갈리지만, 고대국어 한자음에서는 [*덕]으로서 같다. 그러므로 '直[中/딕]'과 '得[中/득]'은 중세국어 한자음이 정립되면서 새롭게 조정되었다고 해야 한다.

㉧ '佐'의 중세국어 한자음은 신형인 [좌]와 고형인 [자]가 있지만, 고대국어 한자음으로는 [*자]가 확인된다. 한어(漢語)에서 '佐, 左'는 개구음인 [-a/-ɑ]에서 개모 [w]가 덧생긴 합구음으로 바뀌었으며, 그 시기는 중고음의 후기 이후이다. 그러므로 '佐'의 고대국어 한자음 [*자]는 전기 중고음을 반영한 것이다.

㉨ '所'와 '助'의 고대국어 한자음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기층의 측면에서는 중세국어 한자음과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중세국어 한자음에서 '所, 助'는 우섭(遇攝 魚語御韻)에 속한다. 여기에 속한 한자음의 중성(中聲)은 아후음(牙喉音)이 [-어]로, 설음(舌音)과 치음(齒音, 精組/照二系와 章組/照三系)이 [-여]로 반영되지만, 치음 중에서 장조(莊組/照二系) 계열만은 [-오]로 반영되어 차이가 있다. 장조(莊組)가 [-오]로 반영된 것은 중고음 후기 이후 장조(莊組)의 권설음화와 이에 따른 핵모의 원순모음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대세이다.[68] 고대국어 한자음에서 '所'와 '助'의 재구음이 시사하는 바는 핵모의 원순모음화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대국어 한자음에서 우섭(遇攝 魚語御韻)의 장조(莊組)는 최소한 중고음 전기 이전의

68) 김무림, 앞의 책, 2015, 280-283면에서 기존의 다양한 논의를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王力, 『漢語語音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 570면; 권택룡 옮김, 『한어어음사』, 대일, 1997을 참조하면, 魚語御韻의 핵모는 선진(先秦)의 [a]에서 한(西漢 및 東漢) 및 남북조(南北朝)에서는 [ɔ]가 되고, 수당(隋唐)에서 [o]가 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후기 상고음에서 전기 중고음인 남북조까지 핵모의 변화는 없었으나, 이후 수대(隋代) 이후에 핵모의 변화가 있었다고 파악한 것이다.

기층을 갖는 것이므로, 중세국어 한자음과는 기층에서 확실히 구분된다. 그러므로 기층에 따라 '所'의 고대국어 한자음을 재구한다면, 전기 중고음일 경우는 [*서]이고, 상고음일 경우는 [*사]가 된다. 역시 '助'는 신라의 목간(안압지출토, 8세기 중후반)에 나오는 '助史'가 중세국어의 '젓'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참고하면, '助'의 고대국어 한자음이 [*저]임을 잘 보여준다.[69]

㉦ '朴'의 고대국어 한자음을 [*붘]으로 재구할 수 있는 것은 '朴'이 중세국어 '붉다'에 연결되면서, 아울러 강섭(江攝, 覺韻)에 속하기 때문이다. 중세국어에서 강섭(江攝)의 한자음이 '江[中/강], 港[中/항], 幢[中/당], 窓[中/창], 邦[中/방], 握[中/악], 覺[中/각], 卓[中/탁], 捉[中/착], 朔[中/삭], 朴[中/박], 邈[中/막]' 등으로 나타나 핵모가 [-아]인 것이 정칙이다. 그러나 전기 중고음에서 강섭(江攝)의 핵모는 원순적인 [ɔ]로 재구되는 것이 보통이며, 상고음은 [o]나 [u]로 재구된다. 후기 중고음에서 강섭(江攝)의 핵모는 [ɔ]에서 [a]로 변화되는 단계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70], 중세국어 한자음은 이 단계의 한음(漢音)을 반영했다고 이해된다. 그런데 강섭(江攝) 각운(覺韻)의 중세국어 한자음에서 유추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學[中/흑]'이 있다. 바로 이 한자음이 고대국어 한자음의 실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고대국어 한자음에서 강섭(江攝)의 핵모는 평순 저모음인 [-아]보다는 원순적이며 중모음에 가까운 [-ᄋᆞ]로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71]

㉧ 고구려 지명 표기에서 '鐵[中/텰]'의 고대국어 한자음을 [*털]로 재구할 수 있는 것은 4등운의 반영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4등운에서 개모 [j]가 생긴 것은 7세기가 지난 중고음 후기의 일이므로, 고구려 한자음에서 개모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고대국어 한자음과 중세국어 한자음의 체계적인 차이로서 4등운의 개모 반영 여부를 기준

69) 『훈몽자회』 중, 21장 참고. 또한 목간의 판독에서 '助史'를 '助史'로 읽고 '맛'으로 해독한 경우도 있다. 이승재, 『木簡에 기록된 古代 韓國語』, 일조각, 2017, 138면.

70) 이돈주, 『漢字音韻學의 理解』, 탑출판사, 1995, 332면.

71) 훈민정음에서 모음 [ㆍ]는 'ㅗ與ㆍ同而口蹙, ㅏ與ㆍ同而口張'이라고 하여 '蹙'도 아니고 '張'도 아닌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즉 평순(平脣)과 원순(圓脣)의 측면에서 중립적인 상태인 것이다. [ㆍ]의 음가가 [ㅏ]와 [ㅗ]의 간음(間音)이라는 견해도 이러한 훈민정음의 기술, 그리고 제주도 방언에 남아 있는 [ㆍ]의 음가와 맥락이 닿는다.

으로 삼을 수 있다. 백제의 인명 표기인 '牟大, 一云麻帝, 又餘大.'[72]에서도 4등운인 '帝'가 1등운인 '大'와 대응하여 '帝'에서 개모 [j]가 아직 생기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신라의 향가에서 4등운인 '齊'는 종결어미 [-져]의 표기로 이해되어 개모 [j]의 존재가 나타난다.[73] 신라의 향가에서 종결어미 '齊'는 8세기를 전후한 시기의 '慕竹旨郎歌(효소왕대, 692-702)'에서 처음 쓰였다. 균여의 향가에서는 3등운인 '制'도 '齊'와 함께 쓰였으며, 역시 [-져]의 표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통일신라 이전의 삼국시대의 한자음에는 4등운자에 개모 [j]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다가 통일신라 이후에 개모 [j]가 생긴 한자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된다.

고대국어 한자음에서 논의에 들지 못한 한자(漢字)는 중세국어 한자음과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재구음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이다. 재구음의 설정이 어려운 경우는 당연히 많지만, 재구의 어려움에 대한 설명은 역시 부연에 불과하므로 생략하는 것이 좋다. 중세국어 한자음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는 한자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74]

마. 중세국어 한자음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경우:

可, 加, 伽, 嘉, 各, 干, 曷, 葛, 甘, 甲, 岬, 皆, 去, 巨, 渠, 巾, 乞, 結, 潔, 驚, 溪, 古, 故, 固, 昆, 骨, 果, 丘, 久, 仇, 俱, 求, 句, 溝, 口, 軍, 斤, 岐, 祇, 鬐, 吉, 那, 南, 奴, 多, 達, 答, 德, 刀, 道, 都, 督, 突, 同, 豆, 杜, 斗, 羅, 落, 梁, 老, 路, 魯, 鹵, 婁, 累, 瑠, 琉, 類, 留, 六, 利, 里, 理, 臨, 立, 馬, 麻, 磨, 摩, 萬, 滿, 万, 曼, 末, 昧, 每, 買, 毛, 牟, 蒙, 務, 武, 茂, 勿, 物, 半, 伴, 泮, 潘, 伐, 伏, 服, 福, 比, 非, 碑, 斌, 賓, 氷, 邪, 沙, 三, 尙, 西, 舌, 蘇, 孫, 戍, 守,

72) 『삼국유사』, 15장.
73) 종결어미 '齊'의 이전에는 주로 '哉'가 쓰였다. '齊'는 순수한 음차로 생각되지만, '哉'는 한문 용법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용법과 용례에 대해서는 남풍현, 『吏讀硏究』, 태학사, 2000, 422-434면을 참조하였다.
74) 음독 구결 및 조선 시대의 이두 한자음은 후대의 한자음에 의하여 조정된 경우가 많으므로 제외하였다.

戌, 述, 示, 悉, 阿, 安, 闕, 押, 也, 夜, 耶, 野, 於, 與, 延, 迎, 烏, 五, 于, 又, 育, 恩, 隱, 乙, 音, 邑, 衣, 伊, 異, 弋, 赤, 積, 訂, 地, 知, 智, 遲, 止, 質, 脫, 下, 漢, 邯, 花, 化, 乎, 欽, 歆, 喜, 希 등등

고대국어 재구 한자음을 토대로 기층을 논의한 '라'의 내용, 그리고 중세국어 한자음과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는 '마'의 한자음을 염두에 두면서, 고대국어 한자음의 기층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바. 고대국어 한자음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

① 전반적으로 중고음의 기층을 갖는다. 이것은 '마'에 열거한 바와 같이 중세국어 한자음과의 동질성이 적게 잡아도 50%를 웃돌기 때문이다.

②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 221-589)에서 수대(隋代, 581-618)를 하한으로 하는 전기 중고음에서 체계적인 반영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라-②-㉣, ㉤, ㉥, ㉦, ㉧, ㉨' 등에서 논의한 바와 같은 양상이 개별적이 아닌 체계적인 차원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기 중고음의 체계적인 반영 양상이 고대국어 한자음의 기층을 규정하는 데에 관건이 된다.

③ 상고음의 흔적이 적지 않게 나타나지만, 체계적이라기보다는 개별적 양상으로 이해된다. '라-①'에 열거한 것들이 체계적인 차원이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고음의 흔적은 비록 개별적이긴 하지만 중세국어 한자음에서는 거의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고대국어 한자음의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다만 '己, 期, 其, 只' 등의 논의와 관련하여 3등 갑을의 차이가 중세국어 한자음에 나타나지만, 고대국어 한자음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은 체계적인 차이점이다.

④ 성모(聲母)의 반영에는 두 측면이 있다. 하나의 계열 안에서 전청(全淸), 차청(次淸), 전탁(全濁)의 반영이 엇갈린 것은 고대국어의 음운체계나 한어에 대한 반영에 작용하는 국어의 음운적 작용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계열 간의 반영 차이가 있는 경우는 기층이 되는 한어(漢語)의 영향에서 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必'의 고대국어 한자음이 [*빌]인 반면에 중세국어 한자음이 [필]인 것은 한어(漢語)의 기층 차이에서 온 것

이 아니다. 그러나 '只'의 고대국어 한자음이 [*기]이고, 중세국어 한자음이 [지]인 것은 기층이 된 한어의 차이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⑤ 유기음 계열의 성립을 확인할 수 없다. 유기음의 확인에 관건이 되는 치음이나 설음에서 'ㅊ'의 확인이 쉽지 않다. 한어(漢語)에서 차청음인 '次, 寸, 抽, 柒' 등이 고대국어 한자음에서 평음으로 재구되며, 차청음은 아니지만 중세국어 한자음에서 유기음을 지닌 '察(中/찰), 陟(中/텩), 沾(中/텸), 肖(中/쵸), 鄒(中/추)' 등이 역시 고대국어 한자음에서 평음으로 재구되기 때문이다.[75]

⑥ 일모(日母)의 반영에서 중세국어 한자음은 [ㅿ/z]가 정칙이지만, 고대국어 한자음에서는 [ㄴ/n]이 일반적이다. 한어의 일모(日母)의 음가가 [ȵ]에서 [dz〉z]로 변한 것이 8세기 당대의 장안음에서 시작된 것이므로, 일모(日母)의 음가로는 최소한 중고음 전기의 반영으로 이해된다.[76]

⑦ 고대국어 한자음을 재구하면서 [g, d, b, z, dz] 등의 유성음 계열을 음운체계에 포함한 논의가 있다. 이러한 논의는 주로 전탁음 용자(用字)의 빈도수에 의거한 계량적 방법을 적용한 것이어서 개연성만 있을 뿐이다.[77] 고대국어 한자음에서 유성음 계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더 충분한 자료에 의한 실증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2-가'에서 보인 다음과 같은 대응 관계에서 유성음 계열과 무성음 계열이 비변별적이다.

[*건] 巾[k-] - 近[g-]
[*검] 黔[g-] - 金[k-]
[*계-*기] 溪[kʰ-] - 雞[kʰ-/k-] - 支[k-] - 兮[ɢ-]
[*기] 岐[g-] - 鬐[g-] - 只[k-] - 支[k-]
[*번-*븐] 飯[b-] - 芬[pʰ-]
[*벌-*블] 發[p-] - 伐[b-] - 弗[p-] - 佛[b-]
[*뎍] 直[d-] - 陟[t-]

---

75) 앞의 재구음 및 김무림, 앞의 책, 2015의 사전부에 제시된 재구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76) 반오운, 『중국어 역사 음운학』, 權赫埈 역, 學古房, 2014, 89면 참고.
77) 유창균, 『삼국시대의 漢字音』 民音社, 1991; 이장희, 「신라시대 漢字音 聲母體系의 통시적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02; 이승재, 앞의 책, 2013; 『漢字音으로 본 고구려어 음운체계』, 일조각, 2016 등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⑧ '라-②-㉲'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중세국어 한자음에서 우섭(遇攝 魚語御韻)에 속한 한자음의 중성(中聲)은 아후음(牙喉音)이 [-어]로, 설음(舌音)과 치음(齒音, 精組/照二系와 章組/照三系)이 [-여]로 반영되지만, 치음 중에서 장조(莊組/照二系) 계열만은 [-오]로 반영되어 차이가 있다. 장조(莊組)가 [-오]로 반영된 것은 중고음 후기 이후 장조(莊組)의 권설음화와 이에 따른 핵모의 원순모음화에 기인하는 것이다. 고대국어 한자음에서 '所'와 '助'의 재구음이 시사하는 바는 핵모의 원순모음화 단계는 통일신라 시기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라-②-㉳'에서 논의한 4등운의 경우는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의 한자음에서 개모 [j]의 성립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 두 가지 기준은 국어 한자음의 시대 구분에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다. 여기에 '라-②-㉱'과 '라-②-㉲'의 기준을 더하면 다음과 같은 시대적 특징으로 요약된다. 4등운의 특징을 기준으로 하면 통일신라의 한자음이 삼국과 고려를 잇는 전이적 성격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삼국〉	〈통일신라〉	〈고려 이후〉
• 우섭 장조의 원순모음화	×	×	○
• 4등운에서 [j]의 발생	×	○	○
• 지섭 치음의 [-ᄋᆞ]	×	×	○
• 강섭 핵모의 평순모음화	×	×	○

최중호[78]는 13세기에 이루어진 고려대장경 각성인 이표기(刻成人異表記)를 통하여 고려시대의 한자음을 살펴본 것이다. 중세국어 한자음에서 [-ᄋᆞ]로 나타나는 지섭 치음자의 경우는 같은 계열끼리 이표기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지적되어 있으며, 이로써 지섭 치음자에서 [-ᄋᆞ]의 반영은 이미 고려시대 한자음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79] 그리고 강섭(江攝)은 탕섭(宕攝)과의 이표기가 확인되어 중세국어와 같은 강섭(江攝)의 평순모음화를 확인할 수 있

78) 최충호, 「고려시대 음운 체계 연구—고려대장경 각성인 이표기를 중심으로—」, 동의대 박사학위 논문, 2005.
79) 같은 글, 117-122면 참고.

다.[80] 당연히 4등운에 있어서도 개모 [j-]의 발생이 확인된다. 즉 4등의 '定, 靑, 丁' 등이 각각 3등의 '鄭, 淸, 貞' 등과 이표기 관계에 있다.[81] 다만 우섭장조의 원순모음화는 용례의 미비로 확인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고려시대의 한자음은 중세국어 전승 한자음과 유사하다는 것이 최중호[82]의 결론이다. 비록 고려 후기인 13세기의 자료이지만, 고려 시대의 한자음이 중세국어 전승 한자음과 동일한 맥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83]

⑨ 한어(漢語)의 입성운미 [-t]가 고대국어 한자음에서도 [-ㄹ]로 반영되었다. 통일신라 이전의 고구려 지명인 '鐵圓郡, 一云毛乙冬非.'[84]에서도 '鐵'과 '毛乙'의 등식, 그리고 중세국어 '털/터리'를 관련시키면, '鐵'의 운미가 [-ㄹ]이었음을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 역시 백제의 지명인 '完山, 一云比斯伐, 一云比自火.'[85]에서도 '伐'과 '火'의 등식, 그리고 중세국어 '블'을 관련시키면 '伐'의 운미가 [-ㄹ]이었음을 알 수 있다. 최초의 시기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한어의 입성운미 [-t]가 고대국어 한자음에서 [-ㄹ]로 체계적으로 반영된 것은 통일신라 이전의 삼국시대에 이미 성립된 것이다. 다만 통일신라 이전의 삼국시대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6세기를 전후한 시기까지 한어 운미 [-t]가 [-ㄹ]로 반영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86]

⑩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등의 한자음이 방언적이거나 개별적인 차원에서 달랐을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재구 용례에서 보인 바와 같이 포괄적인 동질성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미시적 관점에서는 바로 앞에서 언급한 4등운의 [j]의 발생이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하는 것을 시대적 반영 양상의 차이로 들 수 있다. 또한 중세국어 한자음에서 지섭 치음의 [-ᄋᆞ]에

80) 같은 글, 116-117면.
81) 같은 글, 139면.
82) 같은 글.
83) 각성인에서 '丁(中/뎡) : 貞(中/뎡) : 正(中/졍)', '柱(中/듀) : 珠(中/쥬)' 등이 이표기 관계에 있는 것은 중세국어 전승 한자음과 차이가 있다. 같은 글, 170-171면.
84) 『삼국사기』 권37, 4장.
85) 『삼국사기』 권37, 8장.
86) 함안 목간에 대한 연구에서, 권인한은 '發'과 '負'의 대응에 주목하여 '發'이 [발]의 음사(音寫)임이 명확하다고 하였다. 권인한, 「신출토 함안목간에 대한 언어문화사적 연구」, 제25차 한국한자음연구회, 2018년 11월 3일.

대해서는 국어 한자음의 측면에서 좀 더 세밀한 논의가 가능하다. 우선 다음과 같은 차음 표기를 검토하기로 하겠다.

〈고구려〉
- 似城, 本史忽.[87]
- 悉直郡, 一云史直.[88] → 三陟
- 赤木縣, 一云沙非斤乙.[89]
- 赤島縣, 本百濟所比浦縣, 景德王改名, 今德津縣.[90]
- 赤城縣, 本高句麗沙伏忽, 景德王改名, 今陽城縣.[91]
- 松岳郡, 本高句麗扶蘇岬.[92]
- 松山縣, 本高句麗夫斯達縣, 景德王改名, 今未詳.[93]
- 松峴縣, 本高句麗夫斯波衣縣, 憲德王改名, 今屬中和縣.[94]

〈백제〉
- 古四州, 本古沙夫里五縣.[95]
- 分嵯郡, 一云夫沙.[96]
- 所夫里郡, 一云泗沘.[97]

〈신라〉
- 泗水縣, 本史勿縣, 景德王改名, 今泗州.[98]
- 壽同縣, 本斯同火縣, 景德王改名, 今未詳.[99]
- 향가의 '沙, 史'

  入良沙寢矣見昆(處容歌)

  皃史: 즈ㅅ/즈시, 栢史: 자시, 母史: 어ㅅ/어시, 无史: 없이

87)『삼국사기』 권37, 16장.
88)『삼국사기』 권37, 6장.
89)『삼국사기』 권37, 5장.
90)『삼국사기』 권36, 3장.
91)『삼국사기』 권35, 2장.
92)『삼국사기』 권35, 5장.
93)『삼국사기』 권35, 10장.
94)『삼국사기』 권35, 7장.
95)『삼국사기』 권37, 17장.
96)『삼국사기』 권37, 9장.
97)『삼국사기』 권37, 8장.
98)『삼국사기』 권34, 10장.
99)『삼국사기』 권34, 12장. '史勿縣'은 경남 사천 지역이며, '斯同火縣'은 경북 구미 지역이다.

중세국어 한자음에서 [-ᄋᆡ]로 나타나는 지섭(止攝)의 치음자가 통일신라를 염두에 둔 고대국어 한자음에서는 [-이]로 재구되는 데에 이론은 없다. 그런데 위에 제시한 용례들을 검토하면 고구려 한자음에서 '似 : 史, 史 : 悉, 沙 : 所, 斯 : 蘇' 등의 대응이 성립하고, 백제의 한자음에서 '四 : 沙, 嵯 : 沙, 泗 : 所' 등의 대응이 성립한다. 이러한 대응을 관찰하면 고구려 및 백제의 한자음에서 지섭 치음자의 재구에 [-이]가 획일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섭 치음자에 직간접으로 대응하는 '沙, 所, 蘇, 嵯' 등이 [-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100]

반면에 신라의 한자음에서는 두 방향의 해석이 가능하다. '泗 : 史'는 같은 지섭(止攝)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지만, '壽 : 斯'의 대응은 중고음(특히 전기)을 기준으로 한다면 고구려의 '蘇 : 斯'의 대응과 유사하여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도 해결의 한 방법은 삼국시대의 신라 한자음과 통일신라의 한자음에 차이를 두는 것이다.[101] 이러한 차이점을 기준으로 하면 지섭(止攝)에 있어서도 삼국시대의 한자음과 통일신라의 한자음은 체계적인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⑪ 중세국어 한자음은 한어 중고음의 섭(攝)과 운(韻)에 따라 반영의 대응 양상을 살피는 것이 논의의 주요한 방법이다. 이로부터 운(韻)의 통합과 변별을 가리면서 河野六郎[102]에서는 당(唐)의 승려인 혜림(慧琳, 737-820)의 『一切經音義』(807)에 나타난 음계가 중세국어 한자음의 주요 모태층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후에 朴炳采[103]의 부분적인 비판도 있었지만, 중세국어 한자음의 주요 모태로서 당대 장안음의 위치는 흔들리지 않았다. 고대국어 한자음에서도 모태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통계적 의의를 지니기 위해서는 섭과 운에 따른 충분한 반영 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의 '2-

100) 고구려 및 신라의 지명 표기에서 '似 : 史 : 泗'는 같은 지섭의 치음이므로 동음으로 처리되며, '悉 : 史'의 대응은 해석의 어려움이 있다.

101)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지섭 치음자의 한자음은 '삼국시대 〉 통일신라 〉 고려'의 3단계를 거쳐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斯, 史, 四' 등은 '삼국[서/스] 〉 통일신라[시] 〉 고려[ᄉᆡ]'와 같은 변화 단계를 거쳤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102) 河野六郎, 앞의 책, 1968.

103) 박병채, 앞의 책.

가, 나, 다'에 제시한 재구 한자음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으며, 특히 통계적 의의를 지닐 만큼의 수치에 이르지 못한 실정이다. 다만 상고음의 운부(韻部)와 중고음의 운섭(韻攝)을 염두에 두면서, '2-가, 나, 다'에 제시한 재구 한자음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반영의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 止攝과 蟹攝이 통합되는 경향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것은 기층인 한어의 통합을 반영한다기보다는 고대국어 한자음에서 통합되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山攝과 臻攝의 일치는 핵모의 차이가 고대국어 한자음에서 중화된 까닭이다.
- 蟹攝과 遇攝의 일치는 합구음의 반영에 초점이 놓인 까닭이다.
- 梗攝과 曾攝의 일치는 중고음의 핵모에 대한 동일한 반영으로 해석된다.
- 效攝과 假攝의 일치는 운미 [-w]가 반영되지 않은 까닭이다.
- 宕攝과 梗攝의 일치는 상고음 鐸部에서 찾을 수 있다.
- 遇攝, 假攝, 蟹攝의 일치는 상고음이나 전기 중고음의 핵모에서 찾을 수 있다.
- 遇攝과 流攝의 일치는 상고음 魚部에서 찾을 수 있다.

상고음의 운부 일치, 또는 핵모의 일치는 고대국어 한자음의 근거를 한어(漢語)에서 찾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상이한 운섭(韻攝)에 대한 동일한 반영이라는 고대국어 내부의 음운적 양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⑫ 중세국어의 성조는 한어(漢語) 성조와 대응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성조 관계를 고대국어 이표기(異表記)에 적용하면 성조의 대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어의 대응에서 벗어난 고대국어 한자음만의 성조가 있는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4. 남은 문제: 음성운(陰聲韻)의 자음 운미(子音韻尾)

고대국어 한자음을 재구하는 과정에서 음성운(陰聲韻)에 대한 상고음의 자음 운미(子音韻尾)를 참조하는 경우가 많다.[104] 참조하는 과정에서 음성운(陰聲韻)에 대한 자음 운미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대개의 논저에서는 고대국어

104) 중고음을 기준으로 하면 운(韻)은 운미(韻尾)의 성격에 따라 음성운(陰聲韻), 양성운(陽聲韻), 입성운(入聲韻) 등으로 나뉜다. 음성운은 모음이나 반모음으로, 양성운은 비음으로, 입성운은 폐쇄음으로 끝난다. 음성운과 양성운을 합쳐 서성운(舒聲韻), 입성운을 촉성운(促聲韻)이라고도 한다.

한자음의 재구에 적극적인 인용으로 이어진다. 우선 자음 운미와 관련시킬 수 있는 고대국어의 표기를 들면 다음과 같다.

사. 자음 운미와 관련된 고대국어 표기[105]

① 가능성이 있는 표기

〈字-字〉	〈상고음〉	〈고대국어 표기〉
泥-熱-日	[niːl/niːls][ŋjed][njig/-d]	日谿-熱兮-泥兮
尼-熱	[nil]-[ŋjed]	尼山-熱也山[106]
多-達	[ʔlˈaːl]-[daːd/tʰaːd]	多已-達已
達-大	[daːds]-[daːd/tʰaːd]	達句-大丘
朔-所	[sŋraːg]-[sqʰraʔ][107]	朔邑-所邑豆
西-瑟	[swɪːl]-[smrig]	居西干-居瑟邯, 河西良-何瑟羅
西-舌	[swɪːl]-[ɦbljed/groːd]	西林郡-舌林郡
娥-閼	[ŋaːl]-[qaːd/qad]	閼英-娥英-娥伊英
乙-仒	[qrig/-d]-[njelʔ]	內乙買-內仒米

② 참조할 표기

〈字-字〉	〈상고음〉	〈고대국어 표기〉
求-屈	[gu]-[klud/kʰlud]	求佛-屈佛
內-訥	[nuːbs]-[nuːd]	訥祇-內只
內-那-而	[nuːbs]-[naːl/naːls/naːlʔ]-[njɯ]	國內城-不而城-尉那巖城
內-弩-奴	[nuːbs]-[naːʔ]-[naː]	今勿內-萬弩-今勿奴
尼-(齒)	[nil]-[니]	尼師今-齒叱今
豆-同	[doːs][doːŋ/doːŋs]	奴同覓-如豆覓
羅-良	[raːl]-[raŋ]	河西良-何瑟羅

105) 출처는 宋基中, 『古代國語 語彙 表記 漢字의 字別 用例 硏究』, 서울대 출판부, 2004에 의거하여 생략한다.

106) '尼'의 중세국어 한자음은 '니, 닐'이므로 원래부터 입성운도 있었다. 그러나 『광운』에 입성운은 실려 있지 않으며, 『집운』에서 '尼質切'의 입성운이 음성운과 함께 실려 있다.

107) '所'의 상고음 중에서 董同龢의 재구음이 [sag]인 것을 참조하였다.

臨-立	[b・rɯm]-[rɯb]	基臨-基立
大-度-哲	[daːds]-[daːg/daːgs]-[ʔlˈed]	智大路-智度路-智哲老
道-頓	[lˈuːʔ]-[tuːns]	異次頓-處道
禮-祿	[riːʔ]-[rog/roːg]	毛禮-毛祿
毛-(蚊)	[maːw/maːws][모긔]	毛火-紋伐[108]
牟-蒙	[mu]-[moːŋ/moːŋʔ]	雛牟-朱蒙
務-勿	[mogs]-[mɯd]	務安-勿阿兮
武-勿	[maʔ]-[mɯd]	今武-今勿
寶-伏	[puːʔ]-[bɯgs/bɯg]	寶城-伏忽[109]
夫-伏	[pa/ba]-[bɯg/bɯgs]	夫斯-伏史
史-悉	[srɯʔ]-[sid]	史直-悉直
思-色-息	[snɯs/snɯ]-[srɯg]-[slɯg]	思道-色刀-息途
于-郁	[gʷa]-[qʷɯ/qud]	于烏-郁烏
吐-脫	[ɻʰaːʔ/ɻʰaːs]-[ɻʰoːd]	脫解-吐解

운미의 가능성이 있는 표기에서는 종성 [-ㄹ]에 관련된 것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사-①'의 그럴 듯한 용례에 대하여 '사-②'의 더 많은 용례들은 운미의 대응을 괄호에 넣고 신중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고대국어 음절 구조에서 종성의 [-ㄹ]이 [-l]이 아니고 [-r]이었다면 운미의 [-ㄹ]은 괄호 속에 넣어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음성운의 자음 운미와 관련한 고대국어의 표기는 '사-②'의 상반된 용례에 의하여 적극적인 주장을 펴기가 어렵다. '사-①'의 용례를 자음 운미에 대한 긍정적인 논거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고대국어 한자음의 체계적인 양상이라기보다는 상고음의 예외적 잔존과 같은 개별적인 특이 사항으로 해석될 성격임이 분명하다.

108) '毛'의 상고음을 [mog]이나 [mɔg]으로 재구하는 경우도 있다.
109) '寶'의 상고음을 [pôg]으로 재구하는 경우도 있다.

5. 결론

고대국어 한자음은 각종 문헌에 나타나는 이표기(異表記) 및 차음표기(借音表記)를 대상으로 하여 재구하여 얻어야 하므로, 애초부터 불분명한 숙명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지양(止揚)하면서, 스스로 비판적인 자세로 재구에 임할 필요가 있다. 본고의 작성에 임하는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고대국어 한자음의 기층에 대한 귀납은 중세국어 한자음과는 체계적인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증언해 준다. 앞에 정리한 것들을 다시 큰 틀로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아. 고대국어 한자음의 기층에 대한 본고의 요약

① 한어사(漢語史)의 시대 구분에서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 221-589)에서 수대(隋代, 581-618)를 하한으로 하는 전기 중고음(前期中古音)의 기층이 우세하다. 이렇게 되면 중세국어 한자음은 당대(唐代, 618-907) 이후의 후기 중고음을 주요 기층으로 하여 서로 구분된다. 상고음 기층은 개별적인 양상으로 파악된다.

② 고대국어 한자음이라는 틀 안에서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의 한자음은 신구(新舊)의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4등운에서 개모가 발생한 것을 논거로 삼을 수 있다.

③ 한어(漢語)의 입성운미 [-t]가 고대국어 한자음에서도 [-ㄹ]로 반영되었으므로, 국어 한자음 내부에서 이에 대한 시대 차이는 논할 수 없다.

④ 음성운(陰聲韻)의 자음 운미(子音韻尾)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상황으로 파악하였다. 즉 고대국어 한자음에서 음성운(陰聲韻)에 있어서 자음 운미(子音韻尾)의 존재는 긍정보다는 부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무난하다.

▮ 참고문헌

강신항, 『韓漢音韻史硏究(增補補遺篇)』, 월인, 2017.
권인한, 「고대국어 한자음 연구의 가능성 모색」, 『울산어문논집』 제11집, 울산대 국어국문학과, 1996, 143-164면.
_____, 「한자음의 변화」, 『國語史硏究』, 태학사, 1997.
_____, 「吏讀字 '味'의 독법과 한자음의 관계」, 『21세기 국어학의 과제』, 월인, 2000.
_____, 『中世韓國漢字音訓集成』(改訂版), 제이앤씨, 2009.
_____, 「신출토 함안목간에 대한 언어문화사적 연구」, 제25차 한국한자음연구회, 2018년 11월 3일.
권인한・김경호・이승률, 『죽간・목간에 담긴 고대 동아시아』, 성균관대 출판부, 2011.
김무림, 「고대 국어 음운」,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고대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1998.
_____, 「高麗 時代 口訣 漢字音의 硏究」, 『口訣硏究』 제5집, 구결학회, 1999, 75-108면.
_____, 「漢字 '內'의 國語 音韻史的 考察」, 『國語學』 제41집, 國語學會, 2003, 123-143면.
_____, 「한국 한자음의 근대성(1)—반영 양상의 종합—」, 『한국어학』 제30호, 한국어학회, 2006, 89-132면.
_____, 「高句麗 地名 表記의 馬, 買에 대한 解釋」, 『國語學』 제50집, 國語學會, 2007a, 357-376면.
_____, 「국어 한자음의 체계적 근대성」, 『한국어학』 제34호, 한국어학회, 2007b, 113-139면.
_____, 「口訣 및 吏讀 漢字音 硏究의 回顧와 展望」, 『口訣硏究』 제26집, 구결학회, 2011, 55-76면.
_____, 『고대국어 한자음』, 한국문화사, 2015.
金完鎭, 『鄕歌解讀法硏究』, 서울대 출판부, 1980.
남풍현, 『借字表記法硏究』, 단국대 출판부, 1981.
반오운, 『중국어 역사 음운학』, 權赫埈 역, 學古房, 2014.
백두현, 『석독구결의 문자체계와 기능』, 한국문화사, 2005.
宋基中, 『古代國語 語彙 表記 漢字의 字別 用例 硏究』, 서울대 출판부, 2004.
왕 력, 『한어어음사』, 權宅龍 옮김, 대일, 1997.
위국봉, 『고대 한국어 음운 체계 연구』, 태학사, 2017.
유창균, 『삼국시대의 漢字音』, 民音社, 1991.
이돈주, 「訓蒙字會 漢字音 硏究」,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1980.
_____, 「지섭(止攝) 한자음과 /ᄋᆞ/음의 반영」, 『한글』 제173・174호, 한글학회, 1981, 247-266면.
_____, 『韓中漢字音硏究』, 태학사, 2003.
이승재, 『漢字音으로 본 백제어 자음체계』, 태학사, 2013.
_____, 『漢字音으로 본 고구려어 음운체계』, 일조각, 2016.
_____, 『木簡에 기록된 古代 韓國語』, 일조각, 2017.
이장희, 「신라시대 漢字音 聲母體系의 통시적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02.
이준환, 「근대국어 한자음의 체계와 변화」,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8.
_____, 「鄕札 表記字 漢字音 硏究의 回顧와 展望」, 『口訣硏究』 제26집, 구결학회, 2011, 5-54면.
이토 지유키, 『한국한자음연구』, 이진호 역, 역락, 2011.
최남희, 『고대국어 표기 한자음 연구』, 박이정, 1999.

_____,『고구려어 연구』, 박이정, 2005.
최남희 외,『國語史와 漢字音』, 박이정, 2006.
최중호,「이두에 나타난 '內'의 음가에 관하여」, 구결학회・국어사자료학회 공동 전국학술대회 발표문, 2003년 2월.
_____,「고려시대 음운 체계 연구—고려대장경 각성인 이표기를 중심으로—」, 동의대 박사학위 논문, 2005.
한경호,「고대 韓國漢字音에 반영된 東漢~六朝代 中國音(1)」,『口訣硏究』제24집, 구결학회, 2010, 133-161면.

高田時雄,『敦煌資料による中國語史の硏究』, 東京: 創文社, 1988.
大野晉・佐竹昭廣・前田金五郎 編,『岩波 古語辭典』, 岩波書店, 1974.
羅常培,『唐五代西北方音』, 國立中央硏究院 歷史語言硏究所, 1933.
馬伯樂(Henri Maspero),『唐代長安方言考』(1920), 聶鴻音 譯, 中華書局, 2005.
王 力,『漢語語音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
有坂秀世,『國語音韻史の硏究』(增補新版), 三省堂, 1957/1962.
伊藤智ゆき,『朝鮮漢字音硏究』, 汲古書院, 2007.
鄭張尙芳,『上古音系』, 上海敎育出版社, 2003.
周法高,『漢字古今音彙』, 香港中文大學出版社, 1974.
河野六郎,「朝鮮漢字音の硏究」(1968),『河野六郎著作集 2』, 平凡社, 1979.

Hashimoto, J. Mantaro, "Internal Evidence for Ancient Chinese Palatal Endings", *Language*, Vol.46, No.2,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1970.

【Abstract】

A Study on the Sound Base of Ancient sino-Korean Characters

Kim, Moo-Rim*

This thesis aims at phnological interpretation on the sounds of the ancient sino-Korean characters. The sounds of sino-Korean characters are divided by historical period which are ancient, middle,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The studies on the sino-Korean characters were performed by many scholars with comparative method, because of the origin of sino-Korean characters was Chinese. In this thesis I studied on the sound base of the ancient sino-Korean characters with regard to differences in ancient and middle age. Final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how proposals about the sound base of ancient sino-Korean characters. I brought to a conclusion that the sound base of ancient sino-Korean characters were different from the sound base of middle sino-Korean characters in a systematic level. Specially I mentioned the discontinuous of the sounds transmission in sino-Korean characters.

Keywords: sounds of ancient sino-Korean characters, sounds of sino-Korean characters in middle age, origin of sino-Korean, initial sounds of Chinese characters, rhyme sounds of Chinese characters.

접수일: 2019.03.12. ‖ 심사일: 2019.04.10. ‖ 게재확정일: 2019.05.03.

* Professor,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angneung-Wonju national Univ.